

대학생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 요인 분석

박혜영*, 허선주**

요약

본 연구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특성, 성격 5요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서비스 인턴십 경험유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 변인에서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학년, 학점수준, 해외체류경험, 비행기 탑승경험 등이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격 5요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에서는 개인특성 변인 외에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에서는 개인특성 중 학년을 제외한 학점수준, 해외체류경험, 비행기 탑승경험,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차례로 추가로 투입된 모형에서도 개인특성 중 학년을 제외한 학점수준, 해외체류경험, 비행기 탑승경험,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서비스학과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키워드 :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항공서비스학과

Study on Service Internship Participation Determinant Content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 Influence Their Career

Hye-Young Park*, Sun-Joo Hur**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service internship participation determinant contents of undergraduate students who major in airline service to influence their care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data collected from 211 students were analys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ersonal characteristic, big 5character factors, social support were analysed as service internship determinant content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grade, GPA, broad experience, flight experience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xtraversion among big 5factors personality as significant service internship determinant contents of students. Also, the research results showed career prepar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non-significant service internship determinants of students. It was concluded that active participation with service internship is imperative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airline service major to enhance career competence upon graduation.

Keywords : Service internship, Participation determinants, Logistic regression, Airline service undergraduate students

※ Corresponding Author : Sun-Joo Hur

Received : July 30, 2015

Revised : August 29, 2015

Accepted : August 30, 2015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ept.

of Airline Service

Tel: +82-43-849-1534, Fax: +82-43-849-1530

email: luckyhy@ut.ac.kr

** Youngdong University,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1. 서론

대학생이라는 기간 동안은 학업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학업과 직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진로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과 준비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6]. 취업을 위해 대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미래직업에 대해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탐색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기업들의 새로운 채용형태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특히 호텔이나 항공사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는 취업과 연계되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졸업 전 인턴십 기회는 기업과 고용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기업에서 활용함으로써 현장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7]. 대학의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턴십은 학습효과나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관련분야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부분을 현장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4].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인턴십은 자신의 적성여부, 회사의 업무환경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17].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학생과정들을 통해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에 대한 진로관련 스트레스나[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8, 11, 18, 22, 24], 진로준비행동[11, 14, 15, 18, 22, 24], 사회적 지지[8, 18, 22], 성격 5요인[14], 그리고 진로선택과 관련된 인턴십 연구[12, 16]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관련변인들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진로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분야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 많은 대학생들은 실제 서비스업무의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 인턴십을 경력 쌓기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비스분야의 진로와 관련된 서비스 인턴십 참여를 결정하는 콘텐츠요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서비스 인턴십 참여 결정 콘텐츠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서비스 인턴십

인턴십은 대학생들이 교실에서 익히고 학습한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단기간에 현장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25, 26]. 이는 인턴십이 학생들의 진로궤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을 경험하고 경험하기 전보다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였다[19]. 인턴십의 경험이 전문 직업으로의 진입에 있어서 학생들의 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10]. 반면 인턴십을 통한 성공적인 경험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성숙도를 고취시켜주고, 졸업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자격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고용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3]. 인턴십은 대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이나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로 8주에서 12주 정도의 단기간 직무훈련 형태의 인턴제 참여를 통해 대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자신의 관심분야의 실무를 보완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거듭나 취업의 기회도 넓힐 수 있다[7, 21].

기업들의 인턴십은 관광분야, 행정분야, 예술분야, 비서분야, 건축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항공서비스 분야에서는 항공사와 연계하여 이론과 실무를 접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채용까지 연결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턴십은 산업현장의 실제경험을 통해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 진로준비행동이나 직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기업문화를 익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7, 16].

따라서 항공사와 같은 서비스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항공서비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을 알아봄

으로써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서비스산업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2. 진로의사결정 요인

서비스 분야에서 대학생들의 인턴십 참여는 현장경험을 쌓고 실무능력, 현장적응능력, 적성적합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교육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9, 17]. 이러한 인턴십은 학생들의 향후 진로선택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진홍·김홍범(2011)은 호텔관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참여 후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13].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들의 지지는 진로를 결정하고 탐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Gamboa et al.(2013)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료의 피드백, 사회적 지지, 학습기회, 상사의 지원 등과 같은 현장경험의 질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 태도 등의 여러 차원의 경력탐색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인턴십과 관련하여 향후 직업적인 발전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바람직한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행동에 대한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직업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으면 진로를 결정하는 수준이 높지 않아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련 활동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27].

그리고 대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인 성격의 중요성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유형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27]. 이길환·이덕로·박상석(201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이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대학생의 외향적 성격과 친화적 성격은 첫 일자리의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경증과 개방성은 첫 일자리의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5]. 또한 김지연·황매향(2004)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진로결정성이 높을

수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14]. 이처럼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요인에는 인턴십 참여요인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성격요인, 진로준비행동 등의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작용한다[19]. 하지만 Odio et al.(2014)은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인턴십은 대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분명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성격 5요인,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등을 중점적 변인으로 보고자 한다. 졸업 후 항공사 등 서비스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약 250부를 배포하고 232부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분석에 부적절한 21부를 제외한 211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2.8%이고 유효자료율은 90.9%이다.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종속변인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총 5단계로 실시하였다. 모형 I에서는 개인특성, 모형 II에서는 성격 5요인, 모형 III에서는 진로준비행동, 모형 IV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모형 V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차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2. 측정도구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Glodburg(1999)의 IP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당 10개 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오은주(2013)가 타당화한 도구를 활용하였다[2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Betz와 Klein 그리고 Taylor(1996)가 25문항으로 개발한 CDMSE-SF로 구성하였다[2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김연수(1995)에 의해 수정 및 재구성되고, 양민아(2013)에 의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30].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노력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김봉환(1997)이 진로상담과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개발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종찬(2013)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9].

4. 연구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2.3%(26명), 여성이 87.7%(185명)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년은 1학년 36.0%(76명), 2학년 30.3%(64명), 3학년 23.2%(49명), 4학년 10.4%(22명)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42.7%(90명)가 상, 51.7%(109명)가 중, 5.7%(12명)가 하로 나타나 약 95% 정도가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점은 상 23.2%(49명), 중 66.8%(141명), 하 10.0%(21명)으로 중간 이상의 학생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익점수기준 500점 미만이 44.5%(94명),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이 31.8%(67명), 600점 이상 700점 미만이 16.1%(34명),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은 5.2%(11명), 800점 이상은 2.4%(5명)로 토익 점수가 평균 600점 미만인 경우는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체류경험을 살펴보면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경우가 41.2%(87명), 해외체류경험이 없는 경우가 58.8%(124명)로 해외체류경험이 없는 경우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기를 타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9.6%(189명), 비행기를 타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10.4%(22명)로 대부분이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성격 5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우호성, 개방성,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적으로 .750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경증은 .859, 외향성은 .817, 성실성 .759, 우호성 .830, 개방성은 .796으로 각각의 요인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미래계획,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05로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은 .711, 목표선택은 .717, 직업정보는 .604, 문제해결은 .505로 나타나 각각의 요인은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Cronbach's α 계수가 .917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지는 .888, 감정적 지지는 .821, 자료적 지지는 .664, 평가적 지지는 .805로 각각의 요인도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의 계수가 .834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Items	Planning	Goal selection	Occupational information	Problem solving
dmse5	.803	.072	-.007	.113
dmse12	.713	-.049	.231	-.021
dmse4	.713	.414	.080	.084
dmse15	.502	.058	.371	.109
dmse1	-.141	.735	.308	.184
dmse2	.074	.679	.391	.149
dmse6	.461	.594	-.002	-.214
dmse8	.370	.585	.260	.001
dmse14	.097	.254	.769	.048
dmse18	.248	.284	.680	.091
dmse16	.066	-.123	.193	.842
dmse24	.102	.405	-.056	.727
Eigen value	4.006	1.537	1.199	.822
Variance	33.385	12.804	9.995	6.847
Cronbach's α	.711	.717	.604	.505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표 2> 성격5요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Items	Neurotism	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Openness
pf31	.800	.040	-.056	-.011	.013
pf38	.758	-.105	-.099	-.155	-.077
pf41	.743	-.181	-.098	.055	-.133
pf1	.708	.002	.019	.012	-.071
pf37	.706	-.202	-.250	-.108	.015
pf4	.666	-.040	-.061	-.036	-.024
pf3	.610	-.080	-.236	.081	-.100
pf28	.591	.060	.206	-.039	-.022
pf13	.088	.708	.099	.042	.140
pf6	.110	.696	-.176	.064	.183
pf36	-.096	.694	-.002	.237	.163
pf32	-.131	.679	.007	.118	.082
pf17	-.195	.659	.271	.182	.066
pf49	-.035	.643	.114	.179	-.003
pf44	-.194	.543	.150	.154	.080
pf20	.040	.014	.728	.315	.002
pf25	-.149	.107	.718	-.096	.038
pf30	-.066	.062	.709	-.073	-.071
pf16	-.075	-.039	.674	.230	.083
pf7	-.156	.409	.617	.041	.154
pf46	-.114	.160	.105	.838	.067
pf34	-.001	.239	-.046	.790	.009
pf6	.186	.247	.146	.737	-.111
pf48	-.214	.234	.098	.703	.156
pf9	-.027	.083	-.013	.018	.800
pf47	-.214	.164	-.138	.123	.767
pf14	-.019	.207	.158	-.090	.761
pf33	-.071	.120	.099	.062	.736
Eigen value	6.257	3.569	2.521	2.126	1.580
Variance	57.336	22.348	12.746	9.005	7.594
Cronbach's α	.750	.859	.817	.759	.83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Big 5 Personality Factors

<표 3> 사회적 지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Items	Informative support	Emo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Appraisal support
b16	.824	.238	.166	.237
b15	.786	.233	.220	.332
b14	.719	.238	.294	.320
b3	.085	.860	.100	.165
b5	.280	.719	.263	.239
b4	.452	.711	.293	.080
b9	.120	.210	.791	.254
b8	.419	.305	.693	.041
b24	.275	.267	.073	.840
b25	.361	.183	.434	.626
b22	.409	.065	.462	.532
Eigen value	6.089	1.046	.712	.641
Variance	77.170	55.355	9.512	6.477
Cronbach's α	.917	.888	.821	.664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Social Support

4.3. 변인간의 상관관계

<표 4>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수는 -.351~.601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가 .7~.8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관관계 결과는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4.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

항공서비스학과 대학생들의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변인이 투입된 모형 I에서는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들의 학년과 학점수준, 해외체류경험, 비행기 탑승경험이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점수준이 올라갈수록 서비스 인턴십 참여경험이 많아지며, 비행기를 타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 인턴십 참여경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 5요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II에서는 개인특성의 학년과 학점수준, 비행기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비스 인턴십 참여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해외체류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입된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 중 외향성이 강할수록 서비스 인턴십 참여경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향성은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직종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진로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특성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준비행동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III에서 또한 개인특성의 학년과 학점수준, 해외체류경험과 비행기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추가로

<표 4>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206	1												
3	-.193	.331	1											
4	-.116	.453	.126	1										
5	-.227	.271	.117	.250	1									
6	-.130	.342	.153	.197	.343	1								
7	-.313	.398	.073	.244	.328	.464	1							
8	-.213	.427	.168	.208	.346	.498	.558	1						
9	-.003	.167	.215	-.005	.100	.168	.233	.256	1					
10	-.351	.305	.219	.060	.406	.565	.454	.406	.201	1				
11	-.139	.319	.114	.246	.208	.300	.419	.403	.198	.249	1			
12	-.245	.292	.090	.111	.384	.345	.453	.446	.221	.389	.560	1		
13	-.187	.291	.069	.125	.264	.271	.462	.392	.237	.305	.617	.736	1	
14	-.243	.318	.134	.105	.349	.378	.439	.335	.164	.339	.590	.628	.630	1

1: Neuroticism 2: Extraversion 3: Openness 4: Agreeableness 5: Conscientiousness 6: Career preparation behavior 7: Goal selection 8: Occupational information 9: Problem solving 10: Planning 11: Emotional support 12: Informative support 13: Material support 14: Appraisal support

** p<.01, *<.05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Variables category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Democrat- ic charac- teristics	Gender	.160	1.173	.161	1.175	.149	1.161	.068	1.070	.144	1.155
	Grade	.372	1.451*	.416	1.516*	.402	1.495*	.380	1.462	.401	1.493
	Major satisfaction	-.024	.976	-.441	.643	-.486	.615	-.510	.601	-.509	.601
	GPA	.787	2.196*	.722	2.058*	.742	2.100*	.747	2.111*	.691	1.995
	Toeic	.088	1.092	.022	1.023	-.037	.964	-.010	.990	-.030	.971
	Board experience	.650	1.916	.747	2.111*	.733	2.081*	.704	2.022	.762	2.143*
	Flight experience	2.939	18.890*	2.791	16.292**	2.795	16.359**	2.726	15.267**	2.772	15.997**
Big 5 factors person- ality	Neuroticism		.133	1.143	.138	1.148	.154	1.167	.215	1.240	
	Extraversion		1.344	3.835***	1.323	3.756**	1.283	3.607**	1.304	3.684**	
	Openness		-.208	.812	-.247	.781	-.208	.812	-.196	.822	
	Agreeableness		-.085	.919	-.081	.922	-.116	.890	-.034	.966	
Conscientiousness		.283	1.328	.169	1.184	.179	1.196	.098	1.10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35	1.545	.431	1.539	.445	1.561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 cacy	Goal selection						.245	1.277	.228	1.256	
	Occupational in- formation						.078	1.081	.126	1.135	
	Problem solving						-.063	.939	-.075	.927	
	Planning						-.225	.799	-.252	.777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573	.564	
	Informative support								.463	1.588	
	Material support								-.040	.960	
	Appraisal support								.145	1.156	
N	211		211		211		211		211		
-2log likelihood	235.104		215.721		213.972		213.114		209.664		
Model chi-square	51.571***		70.955***		72.703***		73.561***		77.011***		

<Table 5>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투입된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Ⅳ에서는 개인특성 중 학점수준과 해외체류경험, 비행기 탑승경험,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개인특성변인 중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추가로 투입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최종모형Ⅴ에서는 추가로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모형Ⅴ에서도 여전히 개인특성의 학점수준, 해외체류경험, 비행기를 타본 경험,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추가로 투입된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이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2.18배,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약 16배, 외향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3.68배 정도 서비스 인턴십 참여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 변인이 투입된 모형에서는 학년과 학점수준, 해외체류경험,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은 졸업 후 항공서비스관련 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학생들로 서비스 산업 관련 인턴십 참여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턴십은 고학년을 위주로 졸업 전에 진로선택을 탐색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12]과 달리 저학년인 2학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으며,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인턴십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은 저학년에 서비스 인턴십

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분야의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진로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취업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향후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본 경험 또는 해외체류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서비스 인턴십의 참여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은 전공과 취업에 대한 학습동기 및 진로태도가 높은 학생들로 서비스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성격 5요인의 변수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등 추가로 투입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을 때, 개인 특성 변인 외에 외향성이 강할수록 서비스 인턴십 참여경험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길환 외(2012)는 성격 5요인이 대학생의 진로와의 관계에서 첫 일자리로의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았는데, 대학생들의 외향성과 친화적인 성격은 첫 일자리로의 진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 특히 대부분 항공서비스학과의 학생들은 서비스 산업에 취업하고자 진로관련 학과를 선택하였으므로 성격요인 중 외향성이 강할수록 취업 후 서비스현장 업무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추가로 투입된 변인에서는 개인특성의 학년과 학점수준, 해외체류경험과 비행기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차례로 투입된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요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30],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타전공과는 달리 직업선택을 결정한 후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오히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에게 실제 취업하고자 하는 관련분야 서비스 인턴십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추후 서비스현장의 경험을 통한 보다 나은 맞춤형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직무 만족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턴십을 통해 상사가 종사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길러준다고 하였다[4]. 하지만 본 연구에서 추가로 투입된 사회적 지지도 서비스 인턴십 참여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항공서비스학과 대학생들의 인턴십 참여결정 콘텐츠로 보기보다 향후 항공사나 서비스산업으로 진출 후 서비스 현장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된 것이 아니기에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2년제와 4년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차이점을 함께 연구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Ahn, S. H., Expectation and Contents of airport internship supply policy. *The Journal of Airport Transportation*, 53(1), pp.51-59, 2010.
- [2] Ahn, T. Y., & Kim, S. 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in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Centering around college students in Busa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2(6), pp.21-42, 2013.
- [3] Busby, D. D., & Gibson, P., Tourism and hospitality internship experiences overseas: A British perspective,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 Tourism and Education*, 9(1), pp.4-12, 2010.
- [4] Chen, F. C., Ku, E., Chen, F. H., & Chou, S. S., Job Demand, Emotional Awareness, and Job Satisfaction in Internship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0), pp. 1429-1440, 2009.
- [5] Cho, E. S., The Effects of the youth Internship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DMS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4), pp.191-208, 2011.
- [6] Cho, T. Y., & Lee, L. S.,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Vocational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light Services-related Studies, *Korean Journal of Aviation Management*, 7(1), pp.69-86, 2009.
- [7] Choi, A. K., The Current States and Development Tasks of College Students' Corporate Internship,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24(2), pp.23-47, 2010.
- [8] Cho, M. S., Choi, K. S.,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3), pp.1085-1099, 2007.
- [9] Lee, J. C.,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Chung-Ang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13.
- [10] Cunningham, G. B., Sagas, M., Dixon, M., Kent, A., & Turner, B. A., Anticipated career satisfaction, affective occupational commitment, and intentions to enter the sport management profess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9(1), pp.43 - 57, 2005.
- [11] Han, J. W., Social Support and Career Identity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 22(2), pp.117-140, 2013.
- [12] Jang, S. Y., Shim, W. J., Lee, B. R., How do Internship Experiences Affect the Job Prepara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9(1), pp.1-31, 2006.
- [13] Park, J. O., & Kim, H. B., Internship Participants' Perceptions on Career Choice Facto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 Journal of Tourism & Leisure, 23(5), pp.131-149, 2011.
- [14] Kim, J. Y., & Hwang, M. H., A Study on Relationships of Unemployed Worker's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3), pp.637-646, 2004.
- [15] Lee, G. H., Lee, D. R., Park, S. S., A Study on the Effects of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on Career Behavior,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Review, 31(4), pp.397-432, 2012.
- [16] Lee, K. M., Hong, A. J.,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 from Internship Participa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30(3), pp.241-266, 2011.
- [17] Moon, S. Y., Kang, I. H., Impact of Hotel Internship Satisfaction on Corporate Image and Career-Path Decision Making, Tourism Management, 27(1), pp.107-130, 2014.
- [18] Na, T. K., Moon, S. W.,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rofess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rt Majors-Focus on the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8(2), pp.106-117, 2012.
- [19] Odio, M., Sagas, M., Kerwin, S., The Influence of the Internship on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port Management Education Journal, 8, pp.46-57, 2014.
- [20] Oh, E. J.,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gender on the change pattern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the students in the college career course, Dankook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13.
- [21] Roh, K. R., Hur, S. J.,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and Internship on Youth Workers' the Economic Outcom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30(3), pp.93-109, 2011.
- [22] Song, H. S., & Hong, H. Y.,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pp.1325-1350, 2010.
- [23] Taylor, K. M., &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Behavior, 22, pp.63-81, 1983.
- [24] You, M. J., & Choi, A. K., Impa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Business Education, 19, pp.129-153, 2009.
- [25] Kim, H. B., & Park, E. J., The role of social experience in undergraduates' career perceptions through internships,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s and Tourism Education, 12(1), 70-78, 2013.
- [26] Zopiatis, A., & Constanti, P., And never the twain shall meet, investigating the hospitality industry-education relationship in Cyprus, Education & Training, 49(5), pp.391-407, 2007.
- [27] Kim, D. W., A Study on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rait,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0(3), 607-625, 2013.
- [28] Gamboa, Vitor, Paixao, Maria Paula, Neves de Jesus Saul, Internship quality predicts career explor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1), pp.78-87, 2013.
- [29] Yang, M. A.,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M. A.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3.
- [30] Yang, J. H., & Kim. B. W.,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

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2), pp.57-71, 2008.

- [31] Kim, J. Y., & Hwang M. H., A Study on Relationships of Unemployed Worker's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3), pp.637-646, 2004.



박혜영

2005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2009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2014년~현재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항공서비스교육, 인적자원개발



허선주

2007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2011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2011년~현재 :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